

기획논문

# 유라시아 문화유산 연구와 정책 동향

박필호

유네스코 중앙아시아학 국제연구소 소장

## 국문초록

유라시아의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정책 동향을 조망한다면 그 범위가 너무 넓어 한두 가지 맥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공통적 특성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일부 국가들의 경우 정책수단의 근본이 되는 문화유산 관련 법령이 잘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이 독립국가가 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고 일부 국가들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법령을 정교하게 다듬어 집행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도 자체 능력보다는 외국과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발굴사업의 예에서 보듯이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 연구기관과의 협력 아래 진행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유네스코에서도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문화유산의 일련번호 지정사업을 통해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이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향후 잠정목록에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보호 활동은 국가별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보아 예산과 전문 인력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문화유산이나 기록 유산의 등재 활동은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당히 미약하여 향후 이런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근래에 문화유산과 관광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 수립과 연구방향이 시도되고 있다. 다소의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중앙아시아 및 실크로드 국가들은 이런 시도를 환영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는 이들 국가들과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문화유산 정책과 연구활동의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이 기대된다.



## I. 유라시아의 문화유산

유라시아Eurasia는 물론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한꺼번에 지칭하는 말이다. 이 말은 다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곳에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 혹은 문명이 교차하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한정지어 사용할 예정이다. 그렇게 보면 중앙아시아 및 그와 인접한 페르시아 및 아랍 문명권을 이르는 말이 될 것이며 이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고자 한다면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이슬람 문화권이 될 것이다.

현재 터어키와 아랍지역, 구 페르시아권인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 지역 그리고 현재의 중앙아시아 지역 일대는 긴 역사를 통해 민족(ethnic)간의 이동과 교류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 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을 치루었다. 특히 7세기 이후부터 외형상으로는 이슬람교라는 종교 문명을 통해 하나의 문명권으로 통합이 되기는 했으나 각 지역의 왕조나 민족 간의 투쟁이 그친 것은 아니었다.

그들 지역에서는 수천년 간의 '도전과 응전'의 역사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문화유산을 한편에서는 창조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파괴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물론 그런 역사적 상처와 치유의 흔적들이 그들 지역에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에도 귀중한 문화유산들이 일부 근본주의자들에 의하여 파괴되고 있는 현상이 이들 지역에서 이 시대에도 없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하겠다.

그에 더해 비록 이 지역에만 한정된 일은 아니나 많은 유형의 문화유산 자원들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자연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인구의 확장과 그에 따른 개발에 논리에 의하여 과거의 역사적 자산들이 맥없이 허물어져가는 경우도 이 시대에는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인간에 의한 역사 자산의 의도적 파괴나 훼손과는 별도로 자연적 재앙에 의하여 소중한 문화자산을 잃는 경우 역시 종종 일어난다.

현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역사적 창조물들은 단순히 문화적(cultural) 유산(heritage)라는 두 단어의 조합으로 부르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오묘한 깊이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다. 그 속에는 역사적 생산물들을 직접 만들어 낸 장인들의 수십 년간 쌓아온 노력과 기술이 깃들어 있고 그런 역사적 생산물들이 탄생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사람들의 감성과 지혜 그리고 그런 생산물들의 가치를 확인시켜 주는 동시대와 후시대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모두 한데 어우러져 하나의 역사적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현존하는 문화유산은 모두가 대체물이 존재하지 않는 단일하고 고유한 것으로서 지켜야 할 이 유가 있는 것이고 이를 후세에 잘 물려주어야 하는 책임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재를 바라볼 때에는 문화적 편견이나 지역적 구분 혹은 보호 대상 문화유산의 소유권에 따라 보호의 정도에 차등을 두는 것도 피해야 할 일이다. 즉, 유형이든 무형이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에는 내것 내것을 가리지 말고 인류사회 전체가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보존과 승계라는 목적을 달성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의 내용이고 정신이다.<sup>1</sup>

이 글에서는 언급하는 문화유산이란 편의상 유형의 문화유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며 지역적 범위로는 중앙아시아 5개국인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경우에 따라 인근의 국가들인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등을 언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앙아시아라고 하여도, 비록 그들이 최근세사까지 공통의 역사와 문화를 나눈적이 수없이 많았더라도, 이 시대에 이들을 하나로 묶어서 관찰하기에는 다른 점도 너무 많다. 그래서 간혹 논의가 너무 획일적이거나 초점이 모호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라시아 지역이라는 큰 틀에서 공통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몇 가지 논점만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1972) 전문 참조.

## II. 유라시아의 문화유산 정책과 연구 동향

### 1. 문화유산 보호 관련 법령 및 정책 현황

문화유산의 보호 수단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법령의 제정과 집행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문화유산은 소유 주체가 국가, 지방정부 혹은 공공단체인 경우는 물론 개인 재산이라 하여도 재산의 특성상 재산권의 행사가 일정 부분 제한되는 것이 통례이다. 따라서 문화재 관련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필요하고 어떤 재산을 문화유산으로 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리와 지정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어느 한 국가에서 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실행하는 문제는 해당 국가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이를 보존하고 후세에 물려주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척도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법령에는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주체를 규정하여야 하며 목적물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조직을 어떻게 설치하고 구성할 것인가는 물론, 집행하여야 하는 업무는 어떤 종류며 해당 법령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등이 기본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의 골격이 갖추어져야 그에 따라 관련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유산보호와 관련된 법령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기본 법률의 내용에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규칙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보호대상 문화유산에 관한 등록 규정은 있으나 이를 실행할 집행규칙이 갖추어 지지 않은 것이다. 유네스코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으나 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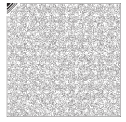
국가의 내부적 사정에 따라 상당 부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반면 이란이나 터키 등 자국의 문화에 깊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나라들은 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법령이 구체적으로 잘 정비되어 있으며 각종 법규정에 내용도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들은 동산문화재의 불법 반출을 규율하는 법령이 없으나 이란이나 터키 등의 경우에는 그런 규율도 상세하게 정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폴 같은 국제조직과의 공조체제도 잘 갖추어 놓고 자신들의 소중한 문화재가 불법적 수단으로 국외로 운반되는 것을 막고 있다.

문화유산의 정책에 관해서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모두 묶어 일률적으로 언급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요소들이 자리잡고 있다. 한정된 경제자원 속에서 문화유산 정책을 다른 부문의 정책과 비교할 때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국 정부나 연구기관 등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인근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문화유산의 보호에 적극성을 띄고 있으며, 관리에도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경제 규모가 작으므로 문화유산의 정책을 수립할 때에 창조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들의 영토 내에 수없이 많이 산재한 문화재들을 발굴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일이 사실상 힘겨운 상태이다. 연구분야에서도 자체적으로 연구역량을 보여줄 형편이 못되고 지극히 한정된 예산으로 한정된 연구 만을 수행하지만, 일부 외국과 협력관계를 적절히 유지하는 연구자들 이외에는 연구를 위한 장비를 구입한다거나 실험을 한다거나 인력을 동원한다거

2 이 부분에서 개별 국가들의 법령 미비 현황의 예를 제시하거나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지적들이 해당 국가들을 폄하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도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나 하는 등의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자부심은 크게 가지고는 있지만, 이런 유산들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에 전향적인 정책을 내놓지 못해 매년 최소한의 현상 유지 정책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후술하는 바와 같이 근래에 들어 관광과 문화유산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정책에 관하여 눈을 돌리려고 하는 중이다.

## 2. 문화유산 연구 및 보호 동향

### 1) 연구 동향 일반

문화유산을 연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세가지 요소는 유능한 연구인력의 확보, 연구를 위한 예산 지원, 적절한 연구 대상의 확정이다. 모든 연구는 사람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연구자의 능력에 따라 연구 성과가 달라 질 수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사실상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재정적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 틀림이 없다. 또한 모든 연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한 연구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정된 인력과 재정자원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해당되는 것이므로 무슨 연구를 먼저 시작할 것인가를 정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헤이그 협약에 따라 문화재를 1) 동산 및 부동산 문화재, 2)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건물, 3) 앞의 1)과 2)를 포함하는 집단시설 등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sup>3</sup> 다른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 국가들도 동산 문화재의 경우 여러 도시에 산재된 박물관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문화재는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도 아래 각 지방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수도 혹은 대도시에 소재한 박물관의 경우, 보존시설과 상태가 그런대로 유지되

고 있으나 지방의 소도시 박물관들은 문화재의 보존 상태가 열악한 곳이 상당히 많다.

그런 국가들에서는 문화재 전문직(curator)이나 시설 관리 전문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고 박물관 건물의 보수나 내부의 온도 조절 등은 엄두를 못내는 곳이 셀 수 없이 많다. 부동산 문화재를 보수하는 계획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부작용을 초래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보수공사를 하거나, 질이 나쁘거나, 부적절한 재료를 사용하여 문화재를 손상시키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또한 예산과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문화재의 보수 공사를 장기간 중단하여 부동산 문화재가 오히려 더 손상을 입는 경우도 흔히 일어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외국 특히 유럽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대외협력을 통한 기술적 혹은 재정적 지원이 간혹 이루어지고 있지만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해를 거듭할수록 대외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젝트는 현재 여러 곳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중앙아시아 각국이 자체의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곳은 대체적으로 규모도 작고 숫자도 많지 않다. 그러나 외국의 지원 혹은 주도 아래 발굴이 되는 곳은 꾸준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예를 들어 발굴 현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발굴지는 총 25개인데 그 중 외국 기관과의 협력으로 발굴되고 있는 곳이 13개를 차지하고 있다. 자체 발굴사업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기간도 짧은 편이다.

우즈베키스탄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사정은 비슷하여 외국과의 공동 프로젝트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발굴을 추진할 수 없는 곳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다. 이렇듯 외국과의 협력이 절실한 탓으로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항상 좋은 결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앙아시아의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문화재 발굴 사업을 기피하고 그 대신 발굴비용만을

3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in the Event of Armed Conflict with Regulations for the Execution of the Convention, 1954.

표 1. 외국과의 협력 사업 현황 예시 (우즈베키스탄의 발굴사업)

사업명	발굴지역	협력국가	사업기간	비고
Mingtepa	Andijan region	China	2012~	BC 2세기 유적
Exploration in the Samarkand region	Samarkand	China	2014~	
Intelligence in the Samarkand region	Samarkand	Italy	2005~	
Vardanzi in Bukhara region	Bukhara	Italy	2015~	
Exploration in the Bukhara region	Bukhara	United States	2012~	
Tashbulak in Jizzakh region	Jizzakh	United States	2015~	
Kafir Kala in the Samarkand region	Samarkand	Japan/Italy	2014~	AD 6~13세기 유적
Ayakagitma in the Navoi region	Navoi	France	2005~2015	신석기 시대
Paikend in Bukhara region	Bukhara 일대	France	2011~	AD 7~8세기
Kazakly-Yatkan Wall-painting Wall	Karakalpakstan	Australia	1995~	BC 4세기
Exploration in Ustyurt	Karakalpakstan	Israel	2015~	

요구하여 일부 국가들이 발굴 현장에서 철수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이는 해당 국가들의 발굴사업의 예산이 충분치 않고 외국기관과의 공동사업인 경우 사업추진에서 자신들의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다.

유능한 연구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 역시 현장과 이론 교육을 통하여 인재를 꾸준히 양성하여야 하지만 기존의 우수한 인력은 해외로 더 나은 연구환경을 찾아 떠나거나 전직을 하는 등의 경우가 많다. 젊은 사람들도 대체적으로 급여가 높지 않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운 일이 많은 문화재 관련 직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발굴의 경우에는 문명과는 고립된 열악한 환경의 현장에서 장기간 작업을 해야 하므로 그런 직업을 기피하는 경향이 크게 일어나고 있어 다음 세대에 문화재 전문 인력의 양성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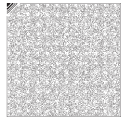
## 2) 문화재 보호 활동 동향

### (1) 세계문화유산 등재 활동

‘세계문화유산(world cultural heritage)’은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이 선언한 것과 같이 문화재 관련 기념물(monuments), 건물군(groups of building) 그리고 장소(sites)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sup>4</sup> 이 협약은 그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인류는 자연적으로 마모가 되거나 기타 사회적, 정치·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소멸될 위험이 있는 유산을 지키고 후세에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한 개별 국가의 차원으로는 그런 유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경제적, 기술적, 과학적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들을 인류 전체의 유산으로 인식하고 지정하여 현재에 관리하고 미래에는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1972년 이후 2015년까지 전세계 163개국에서 834개(32개의 문화-자연 혼합유산 포함)의 문화유산

4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of 1972 art. 1.



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카자흐스탄 3곳, 키르기스스탄 2곳, 타지키스탄 1곳, 투르크메니스탄 3곳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4곳으로 총 13곳의 역사적으로 기념비가 될 만한 장소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이는 인근지역의 이란 19개, 터키 15개(2개는 자연유산과 혼합)로 비슷한 문화권의 단일국가들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세계문화유산이 등재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중앙아시아의 문화유산이 다른 지역 혹은 국가에 비하여 숫자가 적거나 그 가치가 인정을 받지 못하여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여러가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여 그렇게 작은 숫자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경제적으로 앞서고 기술적으로도 발달된 서구의 여러나라들은 많은 수의 세계문화유산을 지정받은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만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다. 예를 들어 2015년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 리스트에 등재된 834개의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유럽과 북미지역 국가들이 430개를 등재시킴으로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있다.<sup>5</sup>

이태리 한 나라가 47개, 스페인이 41개(2개의 혼합유산 포함), 프랑스가 39개(1개의 혼합유산 포함), 독일이 37개, 영국이 24개(1개의 혼합유산 포함)의 문화유산을 등재시키는 등 유럽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문화유산을 등재시켜 놓고 있다.<sup>6</sup> 중앙아시아가 속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68개의 세계문화유산을 등재 시킴으로서 전체의 21%를 점유하고 있고, 가장 적게 등재 시킨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전체 문화유산의 9%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191개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중에서 28개국은 단 한개의 세계유산을 등재시키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들은 모두 경제적으로 저개발국이고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미미한 나라들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불균형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관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왔고 유네스코도 그런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다.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논의 중에서는 모든 협약 당사국들이 같은 수의 세계유산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 협약 당사국의 인구에 따른 비율로 세계유산 등재의 수를 조정하자는 주장, 국토 면적에 따라 등재 수를 조정하자는 방안 등이 있지만 어느 것도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할 뿐더러 현재의 불균형을 당장 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sup>7</sup>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인구 비율로 계산하든 면적으로 계산하든 아니면 국가별로 균등분배를 하든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기준에 미달된다.

그러나 어느 한 국가의 문화 혹은 자연자원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는 경우 관광산업에 크게 영향을 끼쳐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에 적지 않게 기여한다는 현실과 함께, 문화유산의 경우 지정된 유산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 같은 느낌과 심지어 해당 국가의 위상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세계유산 지정을 원하는 국가들이 범정부적으로 크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세계문화유산의 심사에 결정적 영향력을 가진 국제기념물 및 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쉬운 나라들이 세계문화유산의 지정을 받는데 항상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것이다.

중앙아시아와 인접 실크로드 국가들은 어느 유럽국가 못지 않은 대단히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세계문화의 용광로라고 표현하여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온갖 종류의 문화를 포용하였고, 그 흔적들을 모두 간직하고 있다. 불교, 힌두교, 배화교, 기독교, 이슬람교는 물론 부분적으로는 마니교Manichaeism, 텡그리즘Tengrism과 유대교까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품었던 흔적

5 유네스코 World Heritage List Statistics 참조(<http://whc.unesco.org/en/list/stat/#d1>), last visited July 20, 2015.

6 유네스코 World Heritage List 참조(<http://whc.unesco.org/en/list/>), last visited July 20, 2015.

7 Lasse Steiner and Bruno S. Frey, Correcting the Imbalance of the World Heritage List : Did the UNESCO Strategy Work? p.29-30 참조 ([http://www.bsfrey.ch/articles/C\\_549\\_2012.pdf](http://www.bsfrey.ch/articles/C_549_2012.pdf)), last visited July 22, 2015.

이 그대로 남아있다. 인류의 역사를 몇번 씩이나 바꾸어 놓았던 정복자들이 휩쓸고 지나간 흔적을 간직하고 있으며 또 그 휩쓸린 자리에 셀 수 없이 많은 유산을 남겨 놓은 곳도 중앙아시아와 인근의 실크로드 국가들이다. 이렇게 풍부한 문화유산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겨우 소수의 문화유산만을 세계유산에 등재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세계문화유산의 지정이 정치경제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그럴만한 위치에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 (2)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유네스코는 시대와 문화적 한계를 뛰어 넘어 후세에 남길 가치가 있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보관을 위해 1992년부터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의 지정 사업을 시작하여 1997년부터 등재하기 시작하였다.<sup>8</sup> 이 세상에는 인류가 후세에 남겨주어야 할 수많은 문화유산 중 각종 기록은 물론 어떤 행동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도 셀 수 없이 많이 존재한다. 그런 문화유산들은 인간의 속성상 망각할 수도 있고 고의나 과실에 의한 문화적 파괴행위로 인해 사라질 수도 있으며, 자연적 현상이나 혹은 재난으로 인해 소멸될 수도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에서는 여러가지 현대화된 기술을 동원하여 세계에 산재되어 있는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며, 기록유산들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하고 접근하며 감상할 수 있도록 인터넷과 도서출판, CD나 DVD 등을 통한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기록유산의 존재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범세계적으로 제

고시키기 위하여 기록유산의 등재제도를 운영하며 언론 매체와 관련 출판물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널리 알린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sup>9</sup>

2013년까지 격년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기록유산은 300개이며,<sup>10</sup> 2015년도 등재를 위해 2014년도 이후 심사신청(nomination)을 한 기록유산 86개가 현재 세계기록유산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 IAC)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 IAC의 심사를 통과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비율은 평균 약 60%가량이므로 아마도 약 50개 내외의 인류의 값진 기록유산이 금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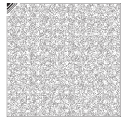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시행 첫 해인 1997년도에 고려대장경과 훈민정음, 그리고 조선왕조실록 등 3개의 귀중한 유산의 등재에 성공한 이래 2013년까지 11개의 기록 관련 유산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켰다. 또한 KBS의 이산가족 상봉 생방송 녹화 필름과 유교 책판 등 2개를 심사 신청하여 2015년 여름, 현재 그 등재 여부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2004년에 유네스코 안에 '유네스코-직지 세계기록유산상(UNESCO/Jikji Memory of the World Prize)'을 설립하여 격년으로 수상기관을 선정하여 상금을 주는 방법으로 세계기록유산 보호사업의 진흥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등재에서 보던 것과 같이 세계기록유산의 등재에도 개발도상국이 소외되는 경향이 여전히 반면,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등재를 과점하는 현상도 역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2013년까지 등재된 300개의 세계기록유산 중 60%인 181개가 북미와 유

8 '기록유산'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일반인들은 좁은 의미의 기록물인 문서와 그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쉬우나, 문화유산으로서의 Memory라는 뜻에는 글이나 그림이 포함된 일체의 문서는 물론이고 서화, 제작된 영상물, 음악 녹음 등 인류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모든 매개체를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Memory of the World라는 말을 풀어서 쓴다면 '온 세상이 잊지 말아야 할 것' 혹은 '온 인류가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이라는 뜻이 될 것이며 이런 표현물 혹은 표현을 담은 매개물을 후세에 남겨야 할 책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이 될 것이다.

9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웹사이트 '사업 소개' 페이지 참조(<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flagship-project-activities/memory-of-the-world/about-the-programme/objectives/>), last visited 25 July 2015.

10 유네스코 기록유산 웹사이트의 '등재유산' 페이지 참조(<http://www.unesco.org/new/en/communication-and-information/flagship-project-activities/memory-of-the-world/register/access-by-year/>), last visited 25 July 2015.



럽국가들의 것으로, 대륙별 국가 수로 비교하거나 대륙별 인구비율로 비교해 보아도 상당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중동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서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대륙 전체의 예를 보면 이들은 유럽지역에 비하여 훨씬 더 풍부한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겨우 80개로 전체의 27%에 불과하다. 그나마 개별국가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11개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킴으로써 아시아 대륙에서 그 정도의 비율이라도 나오게 된 것이다.<sup>11</sup>

중앙아시아와 인근 실크로드 국가들의 경우를 보면, 세계기록유산 등재제도의 지역별 편중 현상을 쉽게 읽을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는 카자흐스탄과 몽골이 각 3개, 우즈베키스탄이 2개, 타지키스탄이 1개를 등재시켰을 뿐 키르기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단 한 개의 기록유산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그 인접국가들로는 이란이 7개, 파키스탄이 1개를 올렸지만 아프가니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은 하나도 등재시키지 못하였다.

이런 현상은 중앙아시아와 인근 국가들이 기록관련 유산의 숫자가 적다거나 역사를 통해 형성된 문화와 문명의 산물이 빈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타지키스탄의 경우 이슬람 철학자이자 시인이며 작가인 압둘 라흐만 자미Abdul Rahman Jami(1414~1492)의 성숙을 넘나드는 그의 일반 저작물들과 수피즘Sufism에 관한 저작물들은 대단한 역사적 종교적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가치(universal outstanding value)가 충분히 있다.

또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여러 나라에 걸쳐 추앙받는 알리 쉬르 나바이Ali-Shir Nava'i (1441~1501)의 저작물 중 특히 차가타이어로 기록된 그의 시집, 문학, 법률, 철학 등에 관한 저작물들도 세계기록유산

으로 등재될 가치가 충분히 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의 철학과 저작은 서로는 오토만 제국, 동으로는 무굴제국, 북으로는 러시아의 정신 사조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많은 역사가들이 증명하는 바이다. 키르기스스탄에도 50만 줄에 이르는 영웅 마나스Manas를 노래한 대서사시가 있으며, 카자흐스탄에도 키즈 지벡Kyz Zhibek 서사시 등 기록유산으로서의 가치가 대단히 높은 작품들이 많이 있다.

### (3) 실크로드 문화유산 지정 사업

유네스코에서는 2005년부터 세계유산 지정을 위한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일련번호 및 다국적 세계유산 지정(Serial and Transnational World Heritage Nomination of the Silk Roads in Central Asia)' 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세계유산협약이 1972년 선언된 이래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의 지정 및 등재사업을 시행해 오는 동안 여러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 중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유산, 특히 문화유산이 지나치게 적게 등재되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2009년도에는 유네스코의 주도 아래 '실크로드 일련번호 및 다국적 세계유산 지정 조정위원회(Silk Roads Serial and Transnational World Heritage Nomination Coordinating Committee)'<sup>12</sup>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유네스코는 2006년 이후 중앙아시아와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고 사업의 방향과 실행방안을 논의한 결과, ICOMOS의 연구보고서가 실크로드 지역을 55개의 실크로드 회랑(corridor)으로 구분한 것을 근거로 하여<sup>13</sup> 그중 우선적으로 중앙아시아를 관통하는 두개의 다국적 실크로드 회랑을 지정하고 그들 지역에 산재한 문화유산들을 잠정목록(tentative list)에

11 위와 같음.

12 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국가로는 Afghanistan, China, India, Iran, Japan, Kazakhstan, Kyrgyzstan, Nepal, Republic of Korea, Tajikistan, Turkmenistan, Uzbekistan 등 12개국이며 동 위원회의 사무국 역할은 ICOMOS International Conservation Center - Xi'an에서 수행하고 있다.

13 Tim Williams, 2014, The Silk Roads : An ICOMOS Thematic Study, pp.74~102 참조(file:///F:/IICAS-Korea%20(%EB%AC%B8%ED%99%94%EC%9E%AC%EC%97%B0%EA%B5%AC%EC%86%8C)/Operational%20Guidelines%20of%20WHconvention.pdf), last visited 26 July 2015.



등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두개의 회랑 중 하나는 천산(산맥)회랑(Tianshan Corridor)으로 키르기스스탄의 이식 쿨 호수와 추이 계곡을 잇는 실크로드이다. 카자흐스탄과 중국 등 3개국이 관련된 곳이며 또 다른 하나는 (중앙아시아) 사막길(Desert Route)로 메르브Merv(현재 투르크메니스탄의 Mary) - 옥수스Oxus(현재의 Amu Darya 강)를 잇는 실크로드로 중간에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드를 끼고 도는 자라브산 강Zaravshan River을 거쳐 타지키스탄의 펜지켄Penjikent에 이르는 통로이다.

유네스코에서는 이들 사업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 사용된 비용 속에는 일부 유네스코 회원국이 설립한 기금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최초로 이 사업을 구상하고 실행할 초기 단계에서는 '유네스코 - 노르웨이 신탁기금(UNESCO - Norwegian Funds-in-Trust)'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후에는 '유네스코 - 네델란드 신탁기금(UNESCO - Netherlands Funds-in-Trust)'이 관련 국가들 간의 회의를 조직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 후에는 '유네스코 - 일본 신탁기금(UNESCO - Japanese Funds-in-Trust)'<sup>14</sup>이 세계문화유산의 등재를 위한 서류 및 지도 제작과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등 사전 준비를 위한 일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정위원회의 참가국이므로 앞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될 것이다.

#### (4) 문화유산과 관광

세계문화유산의 지정과는 별개로 중앙아시아에서 근래에 나타난 문화유산의 연구의 새로운 흐름은 문화유산을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객체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는 문화유산을 관광과 결합시킴으로서 문화유산을 홍보도 하고 경제적 실리도 찾겠다는 실용주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문화유산 연구의 배경에는 2003년에 새

로이 유엔전문기구로 편입하여 근래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제관광기구(World Tourism Organization)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감상을 위해 방문하는 관광객은 문화유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일반 관광객보다 길기 때문에 지출하는 비용도 더 크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세계유산을 등재시킨 국가들은 이들의 등재된 문화 및 자연유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중앙아시아와 실크로드 관련 국가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근래의 경향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물론 관련 기관과 단체들도 관심을 표명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광과 문화유산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산업을 진흥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중앙아시아 등 실크로드 지역에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중이다.

하나의 예로 우즈베키스탄 부하라Bukhara 지방정부가 매년 개최하여 2015년도에 제18회를 맞이한 '비단과 향료 축제(Silk & Spices Festival)'은 지금까지 지방정부 차원의 단출한 축제를 벗어나 새로운 모습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부하라 주정부는 2015년의 축제를 개최하면서 처음으로 유엔관광기구 관계관을 초청하고 관광 관련 국제회의를 개최하는가 하면 많은 돈을 들여 외교사절과 관광 관련 대표들을 대거 초청하여 4일간 계속된 전체 축제기간 동안 체류시키면서 축제의 모든 과정에 참가하도록 독려했다.

물론 부하라는 2011년에 '부하라의 역사적 중심지(Historic Center of Bukhara)'라는 명칭으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역이므로 부하라 정부의 그런 노력이 없어도 유럽 등지에서 관광객이 적지 않게 방문하는 곳이다. 그러나 2015년부터는 문화유산을 자산으로 삼아 관광을 적극적인 정책적 화두로 삼고 있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이렇

14 일본 정부는 2011~2014년 간의 문화유산 일련번호 및 다국적 문화유산 지정의 활동기금으로 958,073USD를 유네스코에 기탁하였다(<http://whc.unesco.org/en/activities/825/>), last visited July 29, 2015.



듯 철저한 중앙집권적 행정을 하는 나라에서 중앙정부의 특별한 지원이나 직접적인 지도가 없이 자체적으로 관광과 문화유산을 결합하여 상승효과를 얻으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유엔관광기구도 유엔의 우산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인 1994년의 사마르칸드 선언(Samarkand Declaration on Silk Road Tourism)을 필두로 1999년의 히바 선언(Khiva Declaration on Tourism and the Preservation of Cultural Heritage), 2002년의 부하라 선언(Bukhara Declaration on Silk Road Tourism), 2009년의 아스타나 선언(Astana Declaration), 2010년의 쉬라즈 선언(Shiraz Declaration) 등 일련의 선언을 통해 실크로드 문화유산을 이용한 관광을 진흥시켜 왔으며, 관련 당사국들도 이에 적극 호응하고 있다.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의 진흥은 많은 부정적 요소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문화유산 소재지 일대의 무분별한 개발로 문화유산의 훼손 및 가치 하락, 문화유산을 적절히 설명하고 홍보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발굴 없이 관광객을 유치하여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를 왜곡시키는 행위, 관광객과 관광지의 일부 원주민 간의 마찰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중앙아시아 및 인근 국가들은 문화유산과 관광산업이 결합되어 상승효과를 내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학문적 연구도 그런 기초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 Ⅲ. 우리나라와 유라시아 실크로드 국가들과의 협력

우리나라도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실크로드 국가들과의 협력관계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실크로드 국가에서 발굴사업을 진행하고 연구자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진행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우리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 등을 통해 이들 국가들의 세계유산 등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특히 세계기록유산 등재에서 더 많은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동산 및 부동산 문화유산의 복원, 보존 및 관리 기술, 박물관 운영 및 전문가 양성 등 우리나라가 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는 분야가 대단히 많다. 또한 이들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국가들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도 체계가 덜 갖추어져 있고 법령의 집행 경험도 짧아 입법과 정책 입안의 분야에서도 앞으로 많은 협력이 필요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더해 중앙아시아 및 인근 실크로드 국가들과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조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네트워크는 우리의 역사적 뿌리를 찾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문화유산 관련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 연구자들과 많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들에게 연구를 지원해 주거나 공동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연구의 질을 높여주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중앙아시아 실크로드 국가들은 과거에 모두 소비에트 연방이라는 단일 정치체제에 속해 있었으나 1991년 각각 독립한 이후로는 여러 분야에서 인접국들 간에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보다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양상을 흔히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들과 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협력체제를 구축할 때에는 중앙아시아 혹은 실크로드 전체를 하나로 묶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보다 국가별로 각각 다른 네트워크를 만들어 복수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 Lin R. C. et al., 2013, Central Asia Serial Nominations : Central Asian Silk Roads, UNESCO
- Steiner L. and Frey B.S., 2011, Correcting the Imbalance of the World Heritage List : Did the UNESCO Strategy Work?  
[http://journal-iostudies.org/sites/journal-iostudies.org/files/JIOSfinal\\_4\\_0.pdf](http://journal-iostudies.org/sites/journal-iostudies.org/files/JIOSfinal_4_0.pdf)
- Timothy, D. J. and Nyaupane, G.P., 2009,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in the Developing World : A Regional Perspective
- Williams, T., 2014, The Silk Roads : An ICOMOS Thematic Study  
[http://openarchive.icomos.org/1487/1/ICOMOS\\_WHThematicStudy\\_SilkRoads\\_final\\_lv\\_201406.pdf](http://openarchive.icomos.org/1487/1/ICOMOS_WHThematicStudy_SilkRoads_final_lv_201406.pdf)



# An Overview of Cultural Heritage Research and Policy in Central Eurasia

---

**Pilho Park**

Director,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 Abstract

Common issues in research and policy on cultural heritage can be extracted among Eurasian countries although countries in the region show different colors of policies and studies. Among them one thing peculiar to Central Asian countries is that in general they do not have well delineated laws and regulations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It may be because they had no enough time and experience to legislate and implemen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ever since they got independence.

Research on cultural heritage in Central Asian countries is often made in cooperation with foreign institutions. As shown in archaeological excavation projects in Central Asian countries, cooperative projects exceed non-cooperative ones in terms of size and longevity. UNESCO, through its projects on the Serial and Transboundary World Heritage Nomination of the Silk Roads in Central Asia, also supports countries in Central Asia and others along the Silk Road in order to facilitate inclusion of their cultural heritages in the Tentative List of the World Heritage. With regard to activities on the protection of cultural heritage, while respective countries in Central Asia have made good efforts, they could not produce effective outcomes due to short of budget and specialized manpower. They have rich resources of cultural and documentary heritage but their registered heritages on the UNESCO's World Heritage List and Memory of the World are under-represented because of short of technology and experience among other things.

A new trend in cultural heritage studies that combined cultural heritage with tourism has merged in recent years. While some critics have raised some negative questions, this new fashion became popular and will continue with the support of governments of Silk Road countries. In conclusion, Korean institutions are further encouraged to organize cooperative networks for research and policy with respective Eurasian countries.

---

**Keyword** Central Eurasia, Central Asia, World Cultural Heritage, Memory of the World, Cultural Heritage and Tourism

**Received** 2015. 08. 04